우수 중학생 타시도 유출 급증

광주, 내신 1등급 추정 학생 올 509명 … 전체 2.2% 빠져나가

외국어고·특목고 선호 '실력광주' 비상

지난 5년간 수능 성적 전국 1위 자리를 지켜온 '실력 광주'가 '공부 잘하는' 우수 중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이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77명(전체 중학교 졸업생 대비 1.33%)에 불과하던 광주의 타 시·도 우수 중학생 유출자 수는 2006년 333명(1.60%), 2007년 346명(1.52%), 2008명 414명(1.74%)으로 늘더니 올해엔 509명(2.16%)으로, 시교육청 개청 이후 최초로 2%대를 넘어섰다.

이들은 고교 진학시 내신 1등급으로 추정되는 우수 중학생으로, 올해에만 전주 상산고 19명, 민족사관고 등 자립형 사립고 5명, 외국어고 95명, 과학·영재고 4명, 국제고 7명, 광양제철고 등 공업계열 78명, 예술 계열 특목·특성화고 56명 등 509명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이는 광주지역 인문계고 1곳의 1학년 전체 학생수를 크게 웃도는 숫자다. 이들은 고교에 진학해 성적을 이어갈 경우 서울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수 인재들이다.

이 같이 역외유출이 심각한 것은 외국어고 등 우수 인재들이 선호하는 교육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광주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어고가 없고, 광주과학고를 제외하고는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 성적 우수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교들도 전무하다.

중3 아들을 둔 오미화(45·여)씨는 "아들이 외국어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가고 싶어한다"면서 "광주에는 없기 때문에 경기도 등에 있는 특목고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의 아들은 현재 전국에서 상위 4%내 성적에 드는 이른 바 '공부 잘하는' 학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 공교육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난 5년간 수능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1등 광주교육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있다.

또,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사립 광주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공모에 나서 최근 자율고 2곳과 외고 2곳의 설립 신청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지역내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자사고와 외고를 설립할 경우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교과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해결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내년 초 개교 여부는 미지수다.

반면 타 지역의 외국어고 개교는 활발하다. 내년 3월 울산외고, 강원외고 등 2곳의 외고가 문을 여는 것을 비롯해 광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2011년까지 5곳의 특목고가 개교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수 중학생들이 아직도 외고 등 특목고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선 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설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공기총 피살 초등생 가족의 아픔

아들 잃어 가슴 찢기고 보험금도 못타 속 타고

교통사고 아닌 총기사고 보상금 최대 1천만원 뿐

지난 4일 음주운전으로 전모(10)군을 친 뒤 공기총으로 살해·유기한 이모(48)씨의 잔인한 범행이 속속 드러나면서 유족들은 슬픔과 분노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턱없이 적은 보상금 규정은 유족들의 찢긴 가슴에 더 큰 생채기를 남겼다. 전군의 사망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총기에 의한 것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D아파트에서 만난 전모(38)씨는 실종신고 전단지에 실린 아들의 사진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집 거실 벽에 걸린 달력 '20'이라는 숫자에는 '막내아들 생일. 놀이공원 가기'라고 적혀 있었다.

토목업을 하는 전씨는 생업도 잠시 접었다. 전씨의 아내(36)는 식음을 전폐한 채 하루종일 발코니 너머의 먼산만 바라보고 산다. TV도 꺼놨다. 뉴스를 보면 아들 생각이 나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둘째 아들(16)이다. 동생과 한 방을 쓰던 둘째는 사건 이후 혼자선 승강기조차 타지 못한다. 밤에 불을 끄면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려 거실 불을 켜고 아버지를 소파에서 자게 한 뒤에야 잠을 청한다. 큰 아들(17)은 말수가 부쩍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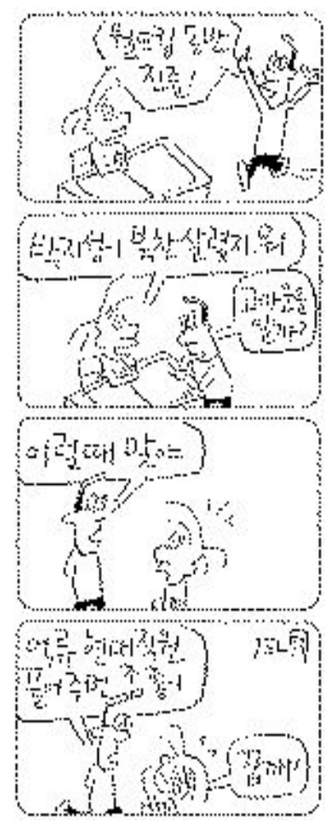
'설상가상'으로 이들 가족들은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피의자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지만, 전군에 대한 진단서 등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사실을 확인할만한 근거가 없는 탓이다. 유일한 증거는 전군이 광주 I병원에 들어갔다 나온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뿐이다.

'범죄 피해자구조금' 제도란 게 있지만 '무자력'과 '생계곤란' 등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유족들은 이 같은 '쥐꼬리 지원' 마저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족구조금은 최대 1천만원이다.

전군의 아버지는 "며칠 전 이씨를 면회갔는데, 거절당했다"며 "용서하고 싶지만 아들만 생각하면 몸서리 처진다"고 울먹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운찬 〈7833〉 김종두



청각장애 노인 KTX에 치여

17일 밤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역~북송정역 중간지점 철로에서 이모(78)씨가 용산발 광주행 제 515호 KTX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청각장애 3급인 이씨가 철길을 건너던 중 열차를 뒤늦게 발견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기관사 채모(43)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금호동 아파트서 40대 女 숨진 채 발견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오후 4시45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S아파트에 사는 이모(여·45)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관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가려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함평 6·25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6·25 당시 함평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생존자 문만섭(75)씨가 18일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인근 야산에서 당시 국군의 민간인 처형 상황과 장소 등을 설명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날 용천사에서 개토식을 갖고 6·25 당시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발굴에 들어갔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심야 부녀자 강도·성폭행 광주 서부경찰, 30대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18일 심야에 홀로 귀가 중인 부녀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뺏고 성폭행을 한 이모(39)씨에 대해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밤 11시께 서구 쌍촌동 한 길에서 K(여·2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현금 3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한 혐의다. /이종행기자 golee@

아내와 불륜 의심 …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광주광산경찰은 18일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모(45)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밤 10시30분께 광산구 양모(46)씨의 집에서 아내 문제로 양씨와 시비를 벌이 던 중 양씨의 머리와 가슴 등에 흉기를 10여차례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양씨가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 받고, 최근 아내의 외박이 잦았다"며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양씨에게) 수차례 얘기했는데, 모른체 해 화가 났다" 고 진술했다.

양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이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음주사고 아들 뇌사시키고 공탁만 하면 다냐"

"군의원 처벌" 1인 시위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고교생의 아버지가 가해자인 군의원을 처벌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화순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화순읍 도로에서 화순군의회 A의원의 차량에 치인 조모(15·고1)군의 아버지(34)가 18일 화순군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조씨는 "군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인이 음주 교통사고로 아들을 뇌사상태로 빠뜨려놓고 법원에 공탁금만 걸면 책임을 다한 것이냐"며 "공탁금 2천만원에 당신은 살고, 내 자식은 왜 사경을 헤매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합의를 위해 조씨를 수차례 만났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공탁금을 걸었을 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의원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로 걸어가던 조군을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A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병원 측이 조군에 대해 '진단 불가' 판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A의원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애완견 때문에… 父子간에 주먹다짐

쌍나팔

○…아들이 키우는 애완견을 흉기로 위협하다 이를 제지하던 아들과 '주먹다짐'을 한 부자가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18일 부자 간에 서로 폭력을 휘두른 김모(46)씨와 아들(18)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애완견이 '으르렁' 소리를 내며 달려드는 데 격분, '맥가이버 칼'을 꺼내 혼(?)을 내던 중 이를 말리던 아들과 격한 몸싸움을 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평소의 불화가 애완견 문제로 표출된 것 같다"며 "부자가 모두 처벌을 원해 폭행 혐의로 둘 다 불구속 입건했다"며 쓴웃음.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